

신행수기 당선작 (천태종 총무원장상)

저 언덕을 향하여 ② · 글

정유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나 중에 안 일이지만 그때는 마침 찬일기도중인 스님의 정해진 기도시간이었는데, 우리 부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타낸 스님이 우리와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걸로 알고 감격해 했다. 법당 밖을 나왔을 때 "힘들었지요?" 하시는 스님의 말씀에 어려운 결심을 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고 또 감격했다. 이것이 아마 우리 부부가 부처님과 처음 만난 것이며 동시에 내 개종(改宗)의 첫발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한번은 예불을 마치고 법당 앞을 나오는데, 큰스님이 "보살님, 오늘은 점심공양을 하고 가시지요" 하고 우리들을 공양간으로 이끄는 통에 열매달에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큰스님이 무조건 상 앞에 앉으라고 권유하는 바람에 거절할 틈도 없이 앉아 공양을 했다. 알고보니 그 밥상이 바로 큰스님의 공양상이었다. 이런 큰 배려에 이후부터 우리들은 절에서 꼭 공양을 하게 되었다.

일요일이면 남편은 동산가고 나는 교회가는, 각각이던 생활이 항상 같이 하게 된 것만으로도 부처님께 감사했다.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둘째아들이 고3이 되었다. 우리 부부는 불심이 깊지 않으면서도 자주 도선사 참회도량의 차가운 바다에서 눈발이 맞으며 열심히 절을 했다. 주위에서 열심히 절하는 내 또래 어머니들의 정성이 보였다. 부처님을 올려다 보았을 때

행하니 햇빛이 소리날 정도로 부처님을 비추었다. 부처님은 나를 자비롭게 내려다 보고 있었다. 나는 하염없이 울면서 절을 했다. 그날밤 나는 환소동에 올라타는 꿈을 꾸었는데 둘째 아들도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자 나에게도 약간의 신심이 생긴 것 같았다.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절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울면서 나의 가슴 속에 맺힌 한을 부처님께 안된다. 그러면 부처님은 무섭지도 않고 인자한 모습으로 나를 내려다 본다. 나는 부처님께 흠뻑 빠져버린다. 이런 일이 있으면 놀라운 가르침을 받는다. 셋째아들도 망월사 관음전에서 눈물기도 한 후 꿈에 책상을 선물받고 대학에 입학하였다.

큰애는 대학생일 때 MBC의 '장년내각'이라는 프로에 출연할 기회를 얻더니 급기야 부모 모르게 제10기 MBC 개그맨으로 뽑혔다. 남편은 노발대발하였지만 나는 큰 아들을 위해서라면 나의 다리가 망가져도 좋다고 생각하며 절하고 또 절했다. 우리 부부가 칠아가도나 새벽예불을 다녀도 아들은 전혀 몰랐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알리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불교TV에서 '현장소스타를 찾아라'라는 프로에 큰아들 성현이가 출연하게 됐다. 성현이가 8개월간 출연하는 동안 이름난 고찰과 스님들, 부처님과 보살들을 접하면서 서서히 바뀌어 갔다. 부처님 계신 곳에서 스님들과 함께 어우러져 재미있게 게임을 진



그림 · 문병성

개그맨 된 큰아들 불교TV에 출연
방에 염주 걸매면 한없이 감사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절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행하는 모습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큰애는 스님이 주었다면서 차에도 방안에도 염주를 걸었다. 이것은 '나는 불자입니다.' 하는 표시이기도 나는 너무나 감사하였다.

요사이 '컬트 삼총사' 하면 젊은이들은 대개 알고 있다. 화려한 웃음으로 포복절도할만큼 컬트삼총사의 개그 콘서트 1~5탄은 연일 매진돼 대학로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들 칭찬해준다. 그 가운데서도 성현이의 아이디어가 반짝인다고들 한다.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열심히 하는 모습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개그맨이 된 지 4년만에 뒀다고들 한다. 그러나 어미인 나는 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진정한 불자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시면 저도 개그맨 안 할게요" 하던 아들이었는데...

남편은 보시의 방법으로 죽비·웃걸이·꼭박재 등을 만들어 스님과 불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어언 4년간 해오고 있다. 죽은 나무를 정성스럽게 손질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면 그 버려진 나무가 어느새 아름답고 싱그러운 불구(佛具)로 변해 버린다. 퇴근함과 동시에 시작,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심배경에 빠진 듯 죽비까지 물음하던 남편은 주위의 권유로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웅진갤러리에서 나무죽비 전시회를 갖게 되었고 호평도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집 현관에는 <금강경>이 걸려 있다. 마무어는 <반야심경>이 있다. 밤마다 죽비가 가득하다. 알기 쉽고 읽기 쉬운 부처님의 말씀이 눈길 머무르는 곳마다 있다. 나의 방에는 부처님 사진과 성철스님 사진이 있다. 그리고 나는 현재 흥재동에 있는 현성정사에서 고운 한복을 입고 찬불가를 부른다.

노래하다 보면 간절하고 뜻깊은 내

몸과 아름다운 화음에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 노래는 잘 하지 못하는데 이런 큰 가르침을 받고 산다. 나는 두손을 모으며 앞드릴 때 부처님께 먼저 참회기도를 한다. "부처님이시여! 잘못된 일들을 용서하시고 제가 해안의 눈을 드도록 정진하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 일어날 때 부처님께 감사기도를 한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큰애 방에서 <금강경>을 읽는다. 광명진언도 외운다. 세상이 험난하여 제 땅에 가지 못한 원혼들의 왕생극락을 빈다. 또 매번 참석하지는 못해도 토요일에는 절에 가 밤 10시에 시작해서 일요일 아침 5시에 끝나는 철야정진에 참여한다. 호흡법에 맞는 절, 스트레스를 날 밀으며 내려주는 협신법, 머리를 맑게 하는 염불을 하고 나면 번뇌 가득한 나의 심상이 맑게 씻기고 기운이 샘솟는 듯하다.

경전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 전통經床의 실용화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원 · 스님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 읽기 · 자녀들의 학습

■재질 : ASH(느름 원목)
■규격 :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가격 : 8만5천원

구입문의 :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주문(http://mall.buddhapia.co.kr)

불부디미이 http://mall.buddhapia.co.kr

珍珠佛像 및 動物像

진주 불상 및 동물상은 순수 진주로 장식한 국내 유일의 작품입니다. 작품에 사용한 진주는 민물 담수 조개에서 채취한 것이며 다섯가지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진주를 다발로 묶어 像에 장식하는 과정을 거친후 국내 유일의 작품이 만들어 집니다. (진주 감정평가서 첨부 / 진주 채취기간 : 4~8년)



관음상(중) : ₩ 1,145,000 / 15cm x 11cm x 20cm
관음상(소) : ₩ 836,000 / 13cm x 7cm x 20cm



말(대) : ₩ 620,000 / 35cm x 11cm x 35cm
말(중) : ₩ 440,000 / 25cm x 9cm x 25cm



돼지 : ₩ 605,000 / 25cm x 12cm x 21cm



풍선 : ₩ 810,000 / 51cm x 12cm x 27cm



호랑이(대) : ₩ 1,215,000 / 30cm x 20cm x 45cm
호랑이(중) : ₩ 472,000 / 45cm x 25cm x 15cm



보탑 : ₩ 404,000 / 12cm x 12cm x 35cm



토끼(대) : ₩ 485,000 / 33cm x 15cm x 15cm
토끼(중) : ₩ 418,000 / 11cm x 14cm x 25cm



거북이 : ₩ 170,000 / 17cm x 15cm x 18cm
물 : ₩ 440,000 / 4cm x 15cm x 17cm



소(대) : ₩ 594,000 / 36cm x 12cm x 25cm
소(중) : ₩ 458,000 / 30cm x 10cm x 15cm



개 : ₩ 648,000 / 30cm x 15cm x 11cm



닭 : ₩ 822,000 / 30cm x 15cm x 50cm



사슴(대) : ₩ 634,000 / 50cm x 20cm x 22cm
사슴(중) : ₩ 476,000 / 31cm x 20cm x 22cm
사슴(소) : ₩ 282,000 / 18cm x 17cm x 22cm

구입문의 :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주문(http://mall.buddhapia.co.kr)

불부디미이 (http://mall.buddhapia.co.kr)